

경도는 재밌어!

김민성

날씨가 흐린 날 난 용빈이랑 놀다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 **경도**를 했다.
그래서 먼저 가위 바위 보를 했다. 근데... 내가 이겼다!!!! 난 바로 지하실로
런을 박았다.
난 지하실에 숨었다. 근데 술래가 너무 안 왔다.
난 용빈이랑 놀면서 지하실에서 표류됐다. 표류 하면서 놀기도 하고, 수도도 펴
고 화장실도 가고 온갖 모든 **별짓**을 다했다.
그렇게 놀던 중에 수...술...래...가..왔다!!!!
난 사자에게 쫓기는 고라니처럼 엄청 빠르게 뛰었다.
그리고 용빈이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고요히 숨고 나는 화장실에 숨었다....근데....
난....그 화장실에 숨지 말았어야 했다.... 왜냐하면..... 그 화장실은 사람이 들
어가 있으면 불이 **계에에에에**속 켜지는 화장실이기 때문이다 !!!
난 또 술래를 만났다. 난 다시 런을 박았지만 결국 술래에게 **잡혔다**.



(출처: <https://www.pngwing.com/ko/free-png-vcsp/>)